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지 - 피램

총평(?)

한줄요약 : 타고인물 파티

고여도 너무 고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1등급 컷이 96~7점이 나올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컷이 96~100으로 형성되던 14~16학년도 모의평가는 이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표본이 상향 평준화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백점 받으면 됩니다.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무조건 다 맞혀 오시면 됩니다. 수능이 쉬울지 어려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쉬워도 어려워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최근 4개년 동안 수능은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B형 기준 1컷 91-93-92-94) 무조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100점이 되어야 합니다.

화작 : 화작 융합지문이 5문제가 딸린 초장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화작에서 정보량을 쏟아내는 형태입니다. 저는 원래 화작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지문을 먼저 읽자는 주의였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도 아직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 기출문제를 뽑아서 한 번 시도해보시고 잘 되는지 판단해 보시다.

문법 : 틀렸으면 정말로 공부가 안 된 겁니다. 모든 문제들이 기출에서 한 번쯤은 다뤘던 소재로 등장했고, 모두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11번 문제는 '즐겁다'의 품사를 묻는 고1수준 문제였고, 12번도 동사/형용사 구분만 할 줄 알면 쉽게 맞힐 수 있었습니다. 13번은 6평과 마찬가지로 어느정도의 <보기> 분석력을 요구했지만 로마자 표기에 쫓지만 않았으면 충분히 답을 골랐을 겁니다. 14번은 고전 문법문제가 항상 그렇듯 <보기>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답이 나왔고, 15번은 안은/안긴 문장 문제 중 가장 쉬운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문법에서 오답이 나왔다면 개념에 심각한 빵꾸가 있거나 문제풀이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이니 시중 문제집 혹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문학 : 문학이야 언제나 그렇듯이 쉬웠습니다. 쉽고 느껴져야 합니다. 한 거십팔곡이 그나마 조금 까다롭게 나왔지만 기본적인 고전시가 해석력, 그리고 <보기>의 도움을 받는 습관, 주석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은 6평보다도 훨씬 쉬웠습니다. 6평에서는 선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하는 형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6평 해설지 45번 해설 참고)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경우도 없었구요. 소설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만 잡고 읽었다면 선지가 숭숭 지워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문학 난이도는 6평과 9평 수준 사이 어딘가에서 출제될 것입니다. 절대 그것보다 어려워질 수는 없으니 수능날엔 빠르게 다 맞아 옵시다.

비문학 : 애매합니다. 저번 6평 때 말씀드린게 지문 난이도가 낮아지고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전 AB형 시절로 회귀한 느낌이어서 아마 수능 땀 항부력이나 채권 같은 킬러 '문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9평에서는 문제에 힘을 좀 뺐 모습입니다. 대신 지문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최근 2개년 수준은 아닙니다. 참 애매합니다. 결론은 그냥 반추위급 지문 혹은 항부력급 문제가 나와도 다 맞혀낼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남은 기간, 솔직히 늦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 미약한 가능성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 합시다.

오늘부로 이 문제들은 시험문제가 아닌 '기출문제'가 되었습니다. 시험볼 때의 힘들었던 감정들은 잠시 내려두고, 냉철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그리고 그 분석에 이 해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출 해설 프로젝트를 따라오신 분들은 훨씬 수월하게 읽히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문법/비문학/문학만 쓸게요.

* 충분히 스스로 분석을 하신 뒤 시험지를 가지고 해설 강의 듣듯이 보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막간을 이용한 홍보

-피램 추석특강 안내-

부제 : 내 인생 마지막 기출강의

강의 목표 : 비문학과 문학의 대표적이고 어려운 기출 지문들을 바탕으로 피램의 국어영역 문제풀이 방법을 완전히 마스터한다!

수강 대상 : 기출을 보긴 봤으나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썬드들. 2~3등급 권장. (나머지 등급대도 대환영. but 타겟은 2~3등급 정도를 잡고 할 거임)

날짜 : 비문학 -> 9월 23일 (일) ~ 9월 25일 (화) 10:00 ~ 14:00
문학 -> 9월 26일 (수) 10:00 ~ 14:00

교재 : 피램 비문학 및 문학 해설집 (당일 배부)

가격 : 하루 수업 6만원. 하루씩도 참여가능. 4일 모두 참석시 20만원. (스터디룸 + 교재 비용 포함)

장소 : 강남역 근처 스터디룸

특전 : 피램 비문학 해설집(배포용) + 피램 비문학 해설집 외전(수강생 전용) + 피램 문학 해설집(수강생 전용) + 피램 문법 주간지 11주치 통합본(수강생 전용) 지급 + 수강생 카페 가입 가능 +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피램과 점심식사 가능 (내가 냄)

커리큘럼 :

9월 23일 (일) -> 비교/대조와 문제해결 (과인포퍼, 양자역학&LP, cd 드라이브, 법인격 부인론, 보험)

9월 24일 (월) -> 과정서술과 비례/증감 (인공 신경망 기술, STM, 반추위, 슈퍼문, 오버슈팅)

9월 25일 (화) -> 필연적 문제풀이 (LFIA 키트, 공개 시장 운영, 이상기체, 채권, 부력&항력)

9월 26일 (수) -> 문학, 허용가능성 평가 (지문은 당일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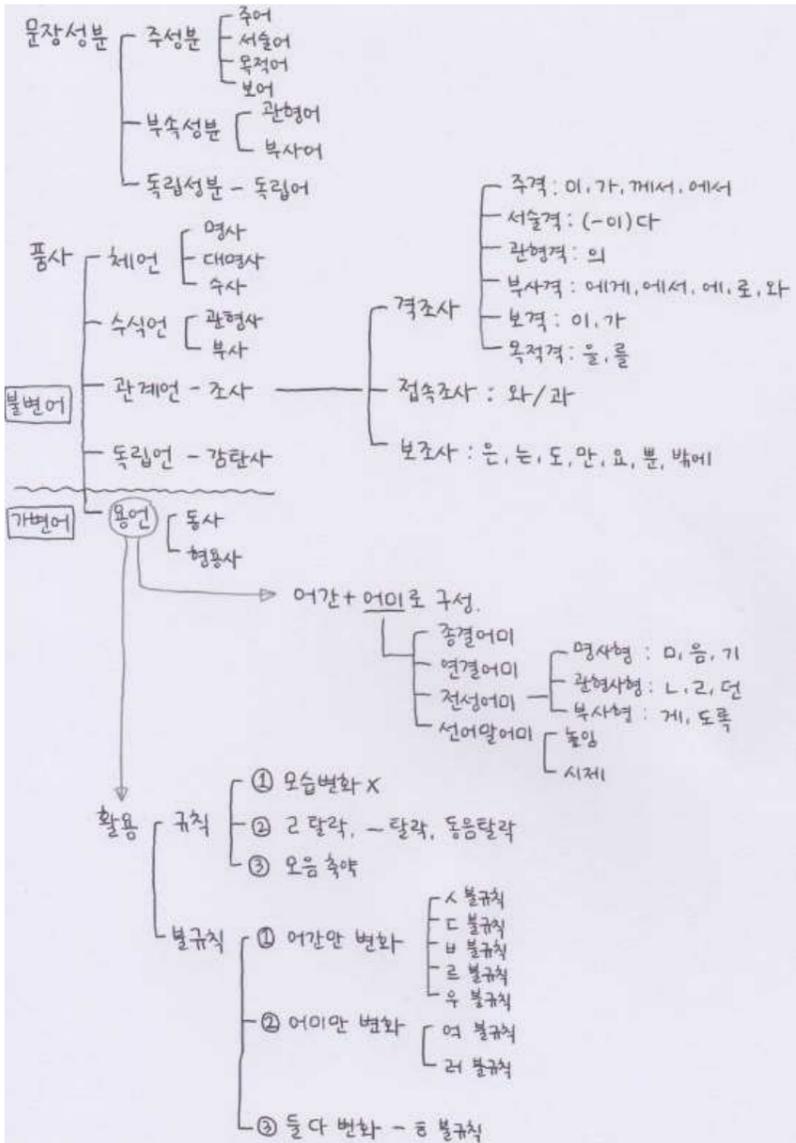
커리큘럼 보고 원하는 날에만 참여해도 좋음. 해당 지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싹 다 알려주겠음.

문의사항은 쪽지나 카카오톡 dpav11212 <- 여기로!

[11~15]

11. ⑤

- ① 일단 지문을 읽으면서 ㉠~㉣이 각각 명사, 동사, 수사, 조사, 관형사라는 걸 바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옛날, 사진, 기억 모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니 명사네요.
- ② 보다, 떠오르다 모두 명령/청유형, 현재형 어미 등이 붙을 수 있으니 동사 맞네요.
- ③ 뒤에 '가'라는 조사가 붙은 걸 보니 체언이니, 수를 나타내고 있으니 수사에 해당하네요.
- ④ 각각 목적격 조사, 주격 조사에 해당하네요.
- ⑤ 설마 이걸 못 고른 학생들은 없겠죠.? '즐겁다'는 형용사죠. 만약 헛갈리셨다면 아래의 품사 및 문장성분 표를 백지에 쓰면서 이해하고 외웁시다.



12. ④

- ① 이건 기본 지식이죠.
- ② 이것도 기본 지식이죠... 지문이 없어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③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몰랐다면 알아 둡시다!
- ④ 지문의 마지막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형용사죠. 어이없게 쉬운 문제네요.
- ⑤ 각각 상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니 맞는 선지네요.

13. ①

- ① ㉠의 '같이'는 [가티] (연음) -> [가치] (구개음화)의 음운 변동이 있었는데, 애가 '땀받이' [땀바디] (연음) -> [땀바지] (구개음화)에서도 일어났고, [가치]라는 발음이 gachi로 쓰여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되었네요. 쫄 필요 없이 시키는대로 한글 대조표 보면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음운 변동 문제예요.
- ② 잡다 -> [잡따] (된소리되기)가 삭제 -> [삭제]에서도 일어났고, 표기 반영 되었네요.
- ③ '놓지'는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데 '놓아'는 자음군 단순화와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로마자 표기는 반영되긴 했네요.
- ④ '맨입'과 '한여름' 둘 다 ㄴ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맨입'의 발음은 로마자 표기에 정말 잘 반영되었죠.
- ⑤ '백미'와 '밥물' 둘 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건 맞는데, '백미'의 발음은 로마자 표기에 정말 잘 반영되었죠. <보기>에 쫄지 않고 시키는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14. ③

- ③ 일단 '부처'라는 부사어, 즉 객체가 가리키는 대상을 '깨'라는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를 통해 높이고 있으니 ㉠은 '부터'가 맞고, ㉡에 들어갈 용언의 어간이 '듣-'이므로 어간 말음은 ㄷ에 해당하네요. 따라서 -줍-의 형태를 써야 하고, 그 밑의 설명에 의해 뒤에 '-으며'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으니 -줍-을 써야 겠네요. 그럼 답은 ③이네요. 고전 문법 문제는 그냥 <보기>가 시키는대로 우직하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절대 틀리지 마세요.

15. ④

- ①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명사절이 안긴 문장 <- 자식이 건강하다 (생략)>
- ②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부사절이 안긴 문장 <- (친구가) 연락(이)도 없다. (주어 생략)>
- ③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명사절이 안긴 문장 <- 동생의 판단이 옳았다. (생략)>
- ④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관형절이 안긴 문장 <- 나는 늘 (공원에서) 쉬었다. (부사어 생략)>
- ⑤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 관형절이 안긴 <- (과제가) 어렵다. (주어 생략)>

안은/안긴 문장에 대해서는 제 자료 중 '문법 아이젠'이라는 자료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때요? 문법은 장난 아니게 쉽죠? 원래 어렵게 출제되던 파트인 안은/안긴 문장도 안긴 문장이 하나만 있는 쉬운 문장들로 출제해서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발로 품시다.

[16~20]

*문학은 지문해설 없이 진행합니다. 선지 판단이 더 중요한 영역이기에..

16. ①

① 공통점 문제는 항상 거시적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시라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건 당연한 선지이고, 의문형 어미만 찾으면 되네요. 겁나 많죠? 쉽네요. 이 정도는 웃으면 고르시면 됩니다.

② 대화하는 방식 이렇게 미시적인 건 시를 읽으면서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른 선지에서 정 고를게 없으면 그 때 확인하는 거예요!

③ 탈속성.. 이건 (가)는 어느정도 허용할 수 있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죠?

④ 이런 것도 답이 되기 쉬운데, (가)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계절적 배경이 없네요. (나)도 애매하지만 '손 시리게 떨던가'가 겨울이라 추워서 떨 다라고 '볼 수 있으니' 계절적 배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그게 아닐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⑤ 의성어나 의태어는 찾아 보기 힘드네요. 자 이렇게 미시적인 것들입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이런 건 답이 되기 정말 힘들어요. 만약 이런 게 답이 되면 시를 읽을 때 팡팡 티가 날 거예요.

17. ②

- 제가 뽑는 이번 시험 문학의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필수적인 고전시가 및 ebs 연계교재 중 고전시가 공부를 통해 기본적인 고전시가 해석력은 갖춰 둡시다.

① 부급동남이 뭔지 모르면 밑으로 가 봅시다. 공부하는 거래요! 공부해서 뭐하려고 그러나요? 부급동남 앞에 보니 '공명'이 보이죠? 공부하면 벼슬에 들 수 있나 봅시다. 벼슬에 들면 '성주'로 표현된 임금님을 섬길 수 있겠네요.

② 공명이라는 단어만 알면 바로 고를 수 있네요. 이 선지를 확실하게 지우려면 18번의 <보기>를 먼저 봐 주시는게 좋은데, <보기>에서 화자는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모두 썩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에 반영되었다고 했어요. <보기>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시는 정치 안 하고 자연에서 잘 살거야! 라는 시가 되는 것이고 (원래 고전시가의 공간은 속세 아니면 자연입니다.) 화자가 '공명'을 이루려고 한다는 2번 선지는 바로 틀린 선지네요. 이처럼 문학, 특히 시 문제에서는 <보기>가 감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성현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닌지는 애매한데 화자가 공명을 이루려는 거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③ 자 이 선지도 '부귀 위기'를 알아야 판단이 되겠네요. 일단 부귀는 벼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뜻한다는 건 알겠죠? 그럼 위기는 무엇이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risk 맞습니다. 한자가 똑같아요.. 평가원이 정말 집요하게 물어본 선지예요. 강호는 자연이고, 부귀는 속세를 뜻하니 속세에서 위기가 있어 자연으로 왔다. 라고 하면 나쁘지 않죠?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한거십팔곡은 이 17수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는 '성현이 가신 길들이 옛날부터 하나뿐이겠냐' 정도로 해석이 되어서 '자연이든 속세든 어디로 가도 성현이 가신 길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데나 상관없다.' 정도로 볼 수 있고, 은둔하거나 세상에 나아가도 도라는 건 어차피 똑같다. 이렇게 도가 다르지 않으니 '어디든 어 떠냐'라는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어디든 어 떠냐'가 참 애매한데, '속 세든 자연이든 다 좋은데 어찌지~'라서 내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속세든 자연이든 다 괜찮으니 자연에 살아야지~'라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선지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둘 다 말이 되니까 후자의 해석은 당연히 말이 되겠죠. 심지어 <보기>에서 화자는 자연을 좋아한다고 못을 박아버렸네요. 물론 <보기>와 같은 후자의 해석이 학자들에 의해 정해진 해석이기는 합니까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전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어 길게 적어봤습니다. 전자처럼 생각하셨더라도 후자도 가능하니까 허용을 해주셨어야 한다는게 핵심이예요!

⑤ 빈천거는 '부귀 위기'에 하는 거니까 자연의 삶을 의미하겠죠? 자연 속에서 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4번 선지 해설을 통해 알 수 있으니 적절한 선지네요.

꽤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고전시가만큼은 ebs에 있는 작품들을 정리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18. ⑤

① 충효뿐인데 그걸 안 하면 금수(짐승)나 다름없다라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십재황황하는 등 계교가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다고 했습니다. (제 2수와 연결) 이를 통해 십재황황=공명 늦음=과거 급제 못함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③ 행장유도의 뜻을 각주에서 찾아보니 <보기>에 나온 '유교적 출처관'이랑 똑같네요.

④ 병들고 늙은 나를 왜 오라 하나. 라는 뜻이니 정치 현실로 가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 있네요. 이런 해석은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못할 테지만 선지를 보고 허용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한 해석을 찾는게 아니라 선지의 해석이 타당한지 '판단'만 하는 겁니다.

⑤ '회보미방'의 뜻을 보니 재능 낭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보기>에서 화자는 조정의 권유에 '응 안 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재능 낭비하면 안 돼~ 라고 한다는 건 자신의 재능을 정치를 위해 쓴다라는 뜻이겠죠. <보기>에서 화자는 정치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보미방'은 화자가 한 말이 아니라 화자를 꼬시려고 조정에서 한 말이에요. '회보미방하니 와라 마라 하냐'라고 했으니깐요. 이게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건 쉽게 알겠죠?

19. ③

- ① 네.. 선지 그대로 허용할 수 있네요.
- ② 눈깔, 은전이 '한'이라는 화자의 반응과 함께 제시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 ③ 행복감??? 화자의 상황과 반응을 체크해보면 행복감은 절대로 허용이 안 되겠네요. 고생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한스러워 하고 눈물이 글썽이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요.
- ④ 어머니가 진주 남강을 새벽이나 밤에만 본다고 했으니 바쁜 것을 허용할 수 있네요.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 ⑤ 이 정도는 뭐 웃으면서 허용할 수 있겠조?

20. ③

- ① (다)에서 고전 시가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다고 했죠. 내적 규범 아 낱니다. 이렇게 비평문이 제시된 경우에는 처음에는 꼼꼼히 읽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필요하면 확인하면 됩니다.
- ② 응 이게 규칙이라면서요..
- ③ ㅇ, ㄹ, ㅁ 같은 울림 소리 (모르면 자음표 외우세요.)를 반복하고 있고, 이게 'ㅇㅇㅇㅇ ㅇㅇㅇ' 형태로 리듬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화자의 정서 표출은 당연히 맞는 선지구요.
- ④ 외적 규율은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리한 삶의 생동감도 완전 개소리네요;
- ⑤ 심표는 현대 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비문학 문제와 다르게 없어요.

- 한거십팔곡의 경우에는 2008학년도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배울 것이 많은 세트니까 꼭 다시 풀어봅시다. 17~18번 문제의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서 기본적인 고전시가를 대하는 태도를 익히도록 합시다.

[21~25]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문단은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시작됩니다. 정의가 정말 대충 나오네요. 아직은 말할 타이밍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용 위험과 CDS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지문의 화제가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살펴보자고 했으니, 그 '어떤 개념'은 배경지식에 불과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언가'일테니까요.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떠납시다. 하나는 화제가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걸 알려면 '신용 위험'과 'CDS'가 뭔지 알아야 한다는 것.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일단 채권의 정의로 시작을 합니다. 11수능을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매우 익숙한 정의네요. 발행자와 투자자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체크해주고, 우리가 궁금해 하던 '신용 위험'의 정의 체크해줍니다. 역시 11수능에 나왔던 지급 불능 위험이란 비슷한 내용이네요. 어렵지 않고, 이런 신용 위험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신용 평가 제도'라는 것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채권은 저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애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신용 평가 제도라는게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CDS 프리미엄은 도대체 뭐하는 놈일까요? 이걸 잊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 봅시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 신용 위험 ↑ → 채권 가격 ↓

이런 신용 위험 때문에 생긴 신용 평가 제도 중 우리나라의 사례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결론은 AAA+가 가장 높은 거고, AAA-, AA+, AA- BBB+, BBB-, BB+ D+, D- 순서라는 거네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거 헛갈려서 틀리신 분들 많으신데, 아마 평소에 우산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일 겁니다. (응 다음 1년에 우산 10개 넘게 사는 놈) 덤병대지 맙시다!^^ 신용 등급은 조정이 가능하고, 신용 위험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비례/증감 관계까지 잡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은 뭘까요!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가령 은행 갑은,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자 드디어 우리가 궁금해하던 CD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CDS는 이런 신용 위험을 피하려고 활용하는 상품이래요. 보장이라는 개념의 정의 체크해주고, 보장 매도자, 보장 매입자가 뭐하는 놈들인지 체크하면 간단하네요. 마지막으로 기초 자산의 정의까지 말이죠. 혹시나 이해 못했을까봐 평가원은 친절하게 예시까지 들어줍니다. 저 예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종의 보험같은 거죠. 보장 매도자는 보험사, 보장 매입자는 보험 가입자, 기초 자산은 건강이나 사고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신용 위험도, CDS도 다 알았습니다. 얼른 CDS 프리미엄 알려주세요!!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효율인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 기초 자산 신용 위험, 보장 매도자 신용 등급, 지급 능력 ↑
→ CDS 프리미엄 ↑

오오오~ (오타임 앓튼 오타임) 드디어 우리가 알고 싶었던 CDS 프리미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반가우셔야 합니다. 저의 해설집을 꼭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화제를 잡고 그것만 기다리며 읽는게 익숙하시죠? 아무튼 CDS 프리미엄의 정의는 보장 매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같은거랍니다. 별 거 없네요. 하긴 채권의 신용 위험을 부담해주는데 매도자에게도 이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CDS 프리미엄은 위에 메모해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메모하면서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데, 저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기초 자산이 쓰레기일수록, 보장 매도자 즉 보험사가 탄탄할수록 수수료가 싸다! 굉장히 쉽네요. 지문이 아주 매끄러운데 (저는 신채호 지문이 딱 떠올랐어요.) 화제의 흐름을 타는 서퍼처럼 글을 꼭 읽으셨다면 아주 내용이 썩썩 들어왔을 겁니다.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21. ②

① 채권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네요.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② 화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용 위험'이라는 개념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험의 정의는 '지급 능력 부족등의 사유로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죠? 그럼 지급 능력이 커지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질테니 신용 위험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개념의 정의를 묻는 선지였습니다.

③ 신용 평가 제도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가세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나구요? 지문의 흐름을 타면서 신용 평가 제도가 왜 나온 건지 생각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용 위험 바로 뒤에 나오겠죠. 이렇게 정보 자체를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지문의 흐름 속에서 위치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올 때도 빠르게 돌아올 수 있어요.

④ 신용 등급과 채권의 가격간의 관계를 묻고 있네요. 그런데 지문에 나온 건 채권의 가격과 신용 '위험'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용 위험과 신용 등급의 관계를 생각해야겠네요.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 신용 등급은? 떨어지겠죠. 정의를 바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신용 위험은 커질 것이고, 채권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겠네요.

⑤ 화제와 직결되는 정보네요. 이런 위험 때문에 CDS라는 보장 계약을 맺게 되고, 여기서 우리의 화제인 CDS 프리미엄이 나온 것이죠.

22. ④

①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했는데, 은행은 이것 샀으니 당연히 보유하겠죠.

②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보장 매도자' 역할은 보험 회사 병이겠죠.

③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은행이 투자한 것이죠? 을은 채권 발행자에 해당하겠네요.

④ 아니.. 너무하네요... 네 위에서도 그렇다고 했죠.. 너무 허무한 선지입니다.

⑤ 부도가 나면 조지는 거죠. 보험은 이득 볼려고 드는게 아니라 손실 안 보려고 드는 것이죠? (17 수능 보험 지문 떠오르면 베리 굿)

23. ②

② 이거 꽤 많이 틀렸던데, 비례/증감 관계를 이쁘게 엮어둔 문제입니다. 비례/증감 관계는 문제에서 반드시 물어보니까 꼭 체크하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네요. 일단 <보기>를 조져 보면, 표의 왼쪽은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고 오른쪽은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이네요. 메모해둔 비례/증감 관계를 보니까, 왼쪽은 낮을수록, 오른쪽은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이 높네요. 그럼 왼쪽이 가장 낮고 오른쪽이 가장 높은 ㉠의 CDS 프리미엄이 가장 높겠고, 두 번째로 높은 건 왼쪽은 ㉡랑 똑같고 오른쪽이 ㉡보다 한 단계 낮은 ㉢겠네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의 대소가 헛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참고로 저는 헷갈릴까봐 왼쪽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오른쪽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줘서 그 점수의 합으로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BB+는 BBB-보다 낮으니까 2점을 주고, BBB+는 1점을 주는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오른쪽의 AAA에는 4점을, AA-에는 3점을, A+에는 2점을, A-에는 1점을 주면 ㉗~㉙는 각각 6, 5, 2, 4, 3점이 되어 ㉘가 두 번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CDS 프리미엄과 관련된 비례/증감 관계를 체크했느냐였네요.

24. ③

<보기> : <보기> 문제는 항상 <보기>를 먼저 조져놓고 들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정리해 봅시다. 글을 쪽 읽으면 헷갈리는데, 밑에 친절하게 연표로 정리해 줬네요. 뭐 상황이 되게 복잡해보이는데, 핵심은 X의 재무 상황이 망했다가 다시 복구되었다. 그리고 신용 등급과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월에 변할 수 있다. 정도네요. 선지를 보며 판단해 봅시다.

①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보장 매도자가 된 건 Z네요. 그럼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건 Z겠죠. 애초에 채권 발행자인 X가 신용 위험을 왜 집니까.

② 2011년 1월 발행시 X의 신용 등급이 A-였고, 9월에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서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으니 다시 재무 상황이 좋아지기 전인 10월에는 신용 등급이 A-보다 낮았겠죠. 정확하게는 신용 등급이 낮아진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A-보다 높을 리는 없겠네요.

③ 2013년 1월은 2012년 12월 X의 재무 상황이 좋아진 이후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2011년 8월, 즉 재무 상황이 망하기 전보다도 좋아졌대요. 그럼 2013년 1월에는 망한 이후인 2011년 10월보다 신용 위험이 훨씬 낮아졌고, 보장 매도자인 Z의 손실 가능성도 확 줄어들었겠네요. 좀 복잡하지만 어렵지는 않죠? 그나저나 지금 2018년인데 왜 날짜가 저렇게 옛날일까요..? 원래 평가원 시험에서 이런 문제는 날짜를 해당 시험이 치러지는 때로 했었는데.. 좀 이상하네요. 옛날에 내뱉던 문제인가..

④ 2013년 9월에 X의 신용 등급이 AA+로 올랐고, 2013년 10월의 CDS 프리미엄은 100bp라고 했습니다. 2013년 3월은 X의 재무 상태가 좋아진 했지만 신용 등급이 9월보다는 낮은 상태겠죠? 신용 위험과 CDS 프리미엄은 비례한다고 했으니 신용 등급과 CDS 프리미엄은 반비례할 것이고, 2013년 3월의 CDS 프리미엄은 100bp보다 더 높겠네요.

⑤ 2011년 1월 계약 체결 당시 A-였던 X의 신용 등급은 망했다가 2012년 12월에 2011년 8월보다 더 탄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2013년 4월에는 A-보다 올랐음 올랐지 그보다 더 낮은 BB-보다 낮은 일은 없겠네요.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정말 시간만 끌려고 만든, 별로 맘에 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답 선지도 신용 위험과 CDS 프리미엄 간의 비례/증감 관계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라 신용 위험의 정의 하나로 풀려서.. 좀 아쉬운 문제네요. 충분히 더 세련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5. ①

① 어.. 네... 답이 1번입니다. 둘 다 '하락하다'의 뜻이 있죠.

- 화제를 정확하게 잡고 지문의 흐름을 타며 읽어주셨다면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다 맞춰 주셔야 해요.

[26~28]

26. ③

① 청포 입은 사람이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뭐라 하느냐?'라고 했으니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자신감 수준이 아니라 자만심이죠; 나 개쩌니까 빨리 힘싸움하자! 라고 하고 있네요.

③ 홍 의정은 참 길동 찾아라니까 바로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라!'하고 있습니다. 유보(순서를 뒤로 미룸)라는 단어의 뜻만 알면 바로 고를 수 있겠네요.

④ 전부 똑같이 절하면서 인사해서 홍 의정이 포기한거죠? 결국 소설은 이렇게 인물들이 뭐하는지, 왜 그러는지만 생각하면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⑤ 마지막 부분에서 울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27. ③

① 시험을 통해서 한편이 되는 거죠. 완전 개소리네요.

② 이 '글'은 시험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지, 활빈당의 유래 같은거량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③ 시험 통과하면 상장군 자리 준다고 했으니 답이네요. 진짜 너무 성의없는 선지입니다. 이런 거에 분노하셔야 해요 여러분! 아닌가.. 이렇게 쉬우니까 좋은 건가.. 아무튼 애가 답입니다.

④ 시험=자아 실현까지는 눈 꼭 감고 허용할 수 있겠는데, 글과 상장군이 방해하는 역할이라는 건 실소가 나오는 헛소리네요.

⑤ 갈등은 참 애매한데, 글과 상장군이 갈등을 심화한다는 건 완전 개소리죠. 글에 적힌 시험을 통과한 후 길동은 상장군이 되어서 둘이 참 잘 지내게 됩니다.

28. ③

① <보기>에서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켰다고 했네요.

② <보기>에서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철관, 돌문까지 추가되었다고 했네요..

③ 아니 <보기>에서 안 무너뜨렸다면서요.. 참 너무하네요..

④ <보기>에서 병조판서 달라하는게 신분 상승 욕망 반영이라고 했네요.

⑤ <보기>에서 그렇다고 했네요.. 이게 3점이라니 진짜..

- 무성익의 끝을 보여준 지문입니다. 이거 틀리셨으면 당장 11개년 문학 기출 다시 풀고 오세요. 그 전까지는 눈물로 참회하셔야 합니다.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에서는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 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 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STM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의가 겁나게 어려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양자 터널링 효과’라는 개념의 정의도 체크해 봅시다. 이 놈 때문에 탐침과 시료라는 애들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침과 시료 간의 거리에 따라 전류가 민감하게 달라지는데, 이를 통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아주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뭘 소리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핵심은 그거네요. ‘STM은 양자 터널링 효과라는 것 덕분에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류가 없으면 이런 시료의 표면 상태를 관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STM의 역할이 시료의 표면 상태를 관찰하는 건데 전류가 없으면 안 된대요. 겁나 까다로운 놈이네요. 이렇게 까다로운 놈이 ‘진공 기술’ 덕분에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STM 이라는 놈은 양자 터널링 효과 덕에 탐침과 시료의 접촉 없이도 전류가 흐르게 해서 시료 표면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놈이다. 그런데 이 놈이 엄청 민감한데, 진공 기술 덕에 애를 쓸 수 있다. 이 정도인데, 그럼 화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STM을 이용하게 해주는 진공 기술’이겠네요. 첫 문단을 읽고 이 지문의 핵심은 ‘진공 기술’이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공 기술이 STM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러 갑시다.

STM은 대체로 진공 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진공이 요구되는 것이다.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진공 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 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 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진공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 기체 압력 ↓ → 진공도 ↑, 기체 분자수 ↑ → 기체 압력 ↑

우리가 궁금해하는 진공이 STM에 쓰이는 양상을 다시 한 번 물음의 형식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글쓰기가 묻는 건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기서 일종의 문제해결이 쓰였는데, 기체 분자들은 시료 표면과 반응하거나 관찰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what+why)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고, 즉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진공 상태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how) 뭐 이걸 못 보셔도 좋지만 그냥 항상 강조하던 부분이니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이렇게 진공이 STM에 필요한 이유는 시료 표면을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인데, 진공의 정의는 저런거랍니다. 비례/증감 관계 하나 줘주고 메모한 다음 계속 읽어 보니 기체 압력과 기체 분자 수의 비례/증감 관계도 나오네요. 뭘 개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은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결론만 팩트로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공 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 한다.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가령 질소의 경우 20℃,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3×10^{-9} 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9} 토르로 낮아지면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10^{-9} 토르 이하의 초고진공이 요구된다.

-> 기체 분자들이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 ↑,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 ↑, 기체 분자 질량 ↓, 기체 압력 ↑ → 단분자층 형성 시간 ↓

이렇게 시료 표면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진공 상태가 필요한데, 이 진공도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대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정의는 뭐 저런 건데, 애는 위에 메모해둔 저런 조건일수록 짧대요. 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최대한 길어야 시료를 잘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체 압력이 저렇게 낮은 상태인 ‘초고진공’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지문의 화제는 ‘시료를 관찰하기 위해 STM이 필요로 하는 진공도의 정도’였네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 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 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자석,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관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2~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다. ①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②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③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 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와의 충돌 빈도를 높여 준다. ④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과정이 1차 펌프 작용이다. 또한 ⑤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다. ⑥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⑦이는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2차 펌프 작용이라 부른다. 이렇듯 1, 2차 펌프 작용을 통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 문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 지문의 체감 난이도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STM이 시료 표면을 잘 보기 위해서는 초고진공 상태가 필요한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스퍼터 이온 펌프'라는게 널리 쓰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이 스퍼터 이온 펌프가 초고진공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겠네요.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일단 스퍼터 이온 펌프라는 놈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말해주고 있네요. 친절하게 그림까지 줬으니 그림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뒤를 보니 고전압의 영향으로 양극으로 이동...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 충돌 빈도 높여줌... 극혐이죠? 정보는 쏟아지는데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정보의 전달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전달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방식에 맞게 읽어 나가면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다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 문단의 정보전달방식은 무엇인가요? 쪽 보니, 어떤 '순서'의 개념이 존재하네요. 이 문단은 과정서술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정 끊어 봅시다. 이 과정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오케이~ 나중에 확인하자~ 라는 마인드로 순서만 끊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하는건? 그렇죠. '뭐 하는 과정인지'를 생각해야겠네요. 제가 과정 자체는 이해하지 못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과정인지는 생각하고 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에서 그 과정을 물어보면 빠르게 돌아와서 해결할 수 있을테니까요. 근데 이걸 이미 생각해뒀죠? '스퍼터 이온 펌프'가 초고진공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화제와 직결되는 정보니까 자연스레 체크가 되어야 해요. 쪽 가 보니 1차 펌프 과정, 2차 펌프 과정 합쳐서 총 7번의 과정을 거쳐 초고진공 상태가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문제로 출제될테니 긴장하시고 넘어가 봅시다. 참고로 과정을 끊는 기준은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반드시 저처럼 7단계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 편한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과정이 끊긴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알아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 지문은 정말 잘 쓴 지문입니다. 화제의 흐름을 타며 읽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첫 문단에서 STM이 뭔지 말해주고, 다음 문단에서 그 STM이 진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해주다가 진공도가 어느 정도나 요구되는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진공도, 즉 초고진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로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평가원스러운 지문이에요. 너무 잘 썼죠? 이런 유기적인 화제의 흐름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가 아니라 시험을 치는 그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350명 중에 300등하던 저도 하잖아요.

자 그럼 'STM이라는 놈은 시료의 표면을 관찰하기 위해 초고진공 상태를 필요로 한다.'라는 화제를 가지고 문제 풀러 가 봅시다.

29. ②

① 진공의 정의를 묻고 있네요. '대기압보다 기체 압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체 압력과 진공도는 반비례한다는 비례/증감 관계가 메모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② 이 선지는 스퍼터 이온 펌프의 정의를 묻기는 합니다만 돌아가지 않고 바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지문의 화제잖아요. 시료 관찰을 잘 하기 위해 STM이 필요로 하는 초고진공 상태. 그리고 그 초고진공 상태를 만들어 주는 스퍼터 이온 펌프! 이렇게 일치 문제의 정답 선지는 화제 그 자체 혹은 화제와 직결되는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정의는 한 마디로 '기체 분자들이 시료 표면 관찰을 방해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STM의 관찰을 용이하게 하려면 이 방해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길게 하려고 초고진공 상태가 요구된 것이구요.

④ 기체 분자의 수와 기체 압력이 비례한다고 나와있었죠? 메모해둔 비례/증감 관계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⑤ 저 확률과 단분자층 형성 시간 사이에 비례/증감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잡았으면 바로 지울 수 있겠네요. 이번 시험이 쉬운 이유는 이렇게 지문에 제시된 비례/증감 관계만으로 선지를 지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개 시장 운영 / 부력&항력 지문처럼 여러 개의 비례/증감 관계를 섞어서 문제를 출제했으면 훨씬 어려웠을텐데 말이죠.

30. ③

① STM은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로 인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로 관찰할 수 있는 놈이죠! 지문의 화제를 역행하는 선지입니다.

② STM은 전류가 필요한 민감한 놈이었습니다.

③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늘려야겠죠?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늘어났으면 기체 압력은 낮아야겠네요! 둘은 반비례한다는 비례/증감 관계가 메모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쉽네요.

④ 단분자층의 정의를 살펴보면 애는 시료 관찰을 방해하는 놈이에요! 이게 형성되면 시료 표면 관찰 못 합니다.

⑤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의 정의를 묻고 있네요. 애 덕분에 접촉하지 않고도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였죠?

31. ①

① 스퍼터 이온 펌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아까 끊어둔 과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자기장! 자기장 몇 번 단계에서 나오나요? ①과 ③에 나오네요! (지문 해설에 제가 매겨둔 번호 기준입니다.) ①번 단계를 보니까 고전압과 전자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뭘 한다고 하네요. 그럼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 작용이 자기장을 만든다는 건 틀린 말이네요. 자기장이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 작용으로 나온 전자에 영향을 주는 건데, 얘는 반대로 말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뭘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냥 끊어둔 과정으로 가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절대로 지문에 쓰인 텍스트 이상으로 안 물어봐요.

② 2차 펌프 과정을 보니 양이온과 충돌한 음극이 타이타늄을 내놓고, (⑤번 과정) 얘가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고 했네요. (⑥번 과정)

③ ④번 과정이네요.

④ ②~④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텍스트 그대로만 물어보죠? 얘가 쉬워서 그런게 아니라 평가원은 원래 그렇습니다.

⑤ ②번 과정이네요. 과정 서술형 지문을 대하는 태도를 정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지문에 쓰인 텍스트 이상의 것을 물어보지 않으니 과정이 나오면 잘 끊어두기만 하자!

32. ⑤

<보기> : 생긴 건 정말 극혐이네요. 일단 <보기> 먼저 정리하고 가 봅시다. 진공 통 A~E가 있는데, 얘들은 일단 부피랑 온도는 다 똑같네요. 그리고 기체 분자가 달라붙을 확률도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A의 압력이 10^{-9} 이라는 것만 체크하고 갑시다.

① 지문에서 압력이 10^{-9} 이고 대기압 온도가 20°C 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약 2500초라고 했죠?

② A와 B의 차이점은 '기체 분자 수'밖에 없네요. 그럼 기체 분자 수와 기체 압력의 관계를 잡아야 하는데, 메모한 비례/증감 관계를 보니 둘은 비례한다고 하네요. 그럼 B의 기체 압력은 A의 기체 압력인 10^{-9} 보다는 작겠죠.

③ B와 C의 차이점 역시 '기체 분자 수'밖에 없습니다. 기체 분자 수와 진공도의 관계를 잡아야하는데, 일단 기체 분자 수와 기체 압력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례/증감 관계를 보니 기체 압력과 진공도는 반비례하네요. 그럼 기체 분자 수와 진공도는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고, 기체 분자 수가 더 많은 C의 진공도는 B보다 낮겠네요. 이렇게 선지에서 묻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생각의 꼬리를 무는 것이 어려운 <보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선지 판단의 결과 자체를 신경쓰지 마시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에 집중해 보세요.

④ D와 A의 차이점은 분자의 질량과 기체 분자 수입니다. 또 메모된 비례/증감 관계를 보니 분자의 질량은 단분자층 형성 시간과 비례하고, 기체 분자 수는 기체 압력과 비례하니 단분자층 형성 시간과는 반비례하겠네요. 그럼 분자의 질량도 크고 분자 수도 적은 D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A보다 훨씬 길겠죠.

⑤ 그나마 조금 복잡합니다.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일단 선지에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묻고 있습니다. 메모된 비례/증감 관계를 보니 얘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과 반비례합니다. 그럼 E와 D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만 비교하면 끝나겠네요. D와 E는 기체 분자 수는 같지만 분자의 질량만 차이가 있네요. 4번 선지에서 분자의 질량과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비례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질량이 더 큰 E가 더 길겠네요. 그럼 E의 충돌 빈도는 D보다 더 낮겠네요! 형성 시간과 충돌 빈도는 반비례하니깐요. 얘가 답이네요. 결국 비례/증감 관계를 메모만 해두고 문제에서 물어볼 때마다 꺼내 쓰기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 이 지문은 사실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문제해결, 비례/증감, 과정 서술 등 평가원이 지문 난이도를 올릴 때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 지문입니다. 거기에 완벽한 유기성은 덤이구요. 이 지문을 읽는 과정과 문제를 푸는 과정 모두 배울 것이 참 많은 지문이니 정독하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둡시다. 평가원이 6평에서는 비교/대조를 메인으로 사용했다가 9평에선 비교/대조를 제외한 모든 구조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수능 때는 어떤 구조가 나와도 할 말이 없으니 만반의 준비를 해 둡시다.

[33~38]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생산학파**는 산업 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 체제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 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는지 탐구했다.> 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속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

자 이 지문은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지문인가 봅시다. 이런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 중 지배적인 관점은 '생산학파'의 견해였다고 해요. 생산학파는 일종의 개념, 혹은 사람(들)로 제시된 것이니 그들의 주장이 곧 그들의 정의가 되겠죠? 항상 사람(들)이 나오면 무조건 그들의 주장을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점/차이점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어쨌든 생산학파는 근대 도시가 사람들이 획일적인 노동자가 되었다고 했고, 푸코라는 사람은 그 훈육 방식을 연구하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감각과 감성 같은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해버렸다고 합니다. 진짜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근대 도시는 참 삭막한 극혐 세상인 것 같아요.

자 뭐 이 지문의 화제는 너무나 간단하게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견해 차이'겠죠? 물론 생산학파 하나만 조질 수도 있겠지만, 지문이 이렇게 긴데 다른 의견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어가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삭막한 기계로 봤던 생산학파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까요?

이에 대하여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콜린 캠벨**은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근대 소비 정신을 복돋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니나 다를까 소비학파라는 다른 놈들이 나오네요. 이들은 근대 도시인들이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네요. 특히 캠벨이라는 사람은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근대 도시에서는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환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했네요. 이 덕에 쾌락이 유발되었고, 근대 소비 정신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말이 길긴 한데, 정말 별 거 없죠? 생산학파는 일, 즉 생산만 한다! 이거고 소비학파는 소비도 한다! 라고 하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둘의 차이점 체크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또 다른 학파도 있을까요?

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아우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여행은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거리인 **아케이드**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가져다주었다.> **벤야민**은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충격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워진다고 말했다.

오 바로 또 하나 더 나오네요. 이런 생산학파와 소비학파 외에도 이들을 아우르려는 입장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는데, 그는 노동의 소외는 인정했지만 소비도 인정하면서 둘을 아우르려고 했네요. 그러면서 소비가 왜 좋은 건지 쪽 설명해 줍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쓱쓱 읽히네요. 벤야민은 이런 소비를 통한 충격 체험이 감성과 감각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준다고도 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이라는 화제에 대해 3명이 나와서 서로 비교/대조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으면서 가 주시면 됩니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벤야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다.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 내는 기계의 리듬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영화의 형식 원리는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영화는 보통 사람의 욕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준다. 벤야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빗대어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함으로써 일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화에 모인 관객은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진짜 길기만 하고 알맹이는 없네요. 역대 장지문 중에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산학파와 소비학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던 벤야민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영화래요. 영화는 저렇게 노동의 소외와 충격 체험을 통한 감성과 감각이 모두 나타나는 매체인데, 이는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답니다. 그리고 뭐 시각적 무의식이라는 걸 체험하는데 관객들끼리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하답니다. 와~ 정말 재밌네요 그죠? 제가 이 시험에서 마지막으로 푼 지문이 이 지문이었는데, 시간이 모자랄까봐 긴장했는데 너무 쉬워서 오히려 시간을 남겼습니다. 평가원의 배려가 보이는 지문이에요.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는 생산학파와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 이렇게 **벤야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인 시선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요약해주면서 끝나네요. 결국 이 지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였어요. 문제 풀어 봅시다. 문제는 더 어이없이 쉬워요.

33. ⑤

- ①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까지는 베리 굿인데, 영화를 유형별로 분류한 적은 없죠?
- ② 순서가 바뀌었죠. 벤야민 견해 나오고, 영화 개념 나오고, 의의와 한계 나옵니다.
- ③ 벤야민의 관점까진 좋은데, 근대 도시의 기원과 영화의 탄생 간의 공통점 차이점은... 좀 너무했네요.
- ④ 영화의 변화 양상도, 벤야민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 ⑤ 완벽하네요. 펄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문의 화제를 잘 요약했어요.

34. ④

- ① 생산학파가 근대 도시를 기계라고 보는 건 좋은데, '근대 도시인이 지닌 환상'은 소비학파의 주장에서 나오는 거였죠? 각 학파의 주장을 정확하게 체크했다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 ② 총체적 난국이네요.. 일단 생산학파가 근대 생산 체제를 이야기한 건 맞는데, 테크놀로지, 욕망과 충족의 간극 해소는 소비학파의 주장이었죠?
- ③ 금욕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마저도 쾌락적인 소비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주장을 정확하게 체크하기를 요구하는 선지예요.
- ④ 소비학파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했네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지문의 핵심들을 정답 선지마다 이쁘게 요약해둔 것이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 ⑤ 생산학파와 소비학파의 공통점은 이 지문에서 나온 바로는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을 탐구했다.' 밖에 없습니다. 집단 규율 완화는 나온 적도 없고 유순한 몸은 생산학파에서만 주장한 내용이에요.

35. ②

- ① 영화는 이런 정신적 충격을 통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 ② 이런 정신적 충격은 '영화의 형식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제는 나온 적도 없어요. 사실 이 선지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원래 평가원은 이렇게 지문에 없는 내용을 끌고 와서 오답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험은 조금 급조한 느낌이 들어요. 비문학 두 지문 말고는 맘에 안 듭니다.
- ③ 영화와 근대 도시는 이런 충격 체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 ④ 영화의 형식 원리가 유발한다고 2번 선지 해설에서 말했습니다.
- ⑤ 바로 뒤에서 육안을 넘어선 체험 나오네요. 밑줄 문제는 이렇게 밑줄 근처를 봐야 근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밑줄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36. ①

- <보기> : 이렇게 한 인물의 주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지문에선 다른 인물의 주장을 주는 <보기>를 반드시 넣어줍니다. 베르토프라는 사람의 주장을 체크해봅시다. 벤야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화인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표현'한 것이네요. 그리고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를 사용했고, 신기하게도 관객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 줬다고 합니다. 뭐 그렇구나.. 하고 선지 판단 해봅시다.
- ① 엥 베르토프는 영화인을 주체적으로 표현했다니까요! 차이점을 묻는 선지네요. 너무 허무하네요.
 - ② 네 둘의 차이점이 이거라니까요! 평가원 형님들.. 똑같은 내용으로 선지 두 개 쓰는 건 반칙 아닙니까?
 - ③ 네 뭐 그럴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기>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 지문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 ④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 = 예측 불가능
 - ⑤ 베르토프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1920년대 사람들이니까 근대 도시인 맞죠 뭐.. 그리고 이 지문의 화제 자체가 근대 도시인들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신기한 장면에 즐겁게 반응하는 감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근대 도시인이겠죠.

37. ④

- ① 생산의 공간(생산학파) + 꿈꾸는 공간(소비학파) = 벤야민 = 화제!
- ② 1번 선지랑 똑같죠. 소비학파의 내용은 벤야민도 공감합니다.
- ③ 그렇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말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 벤야민의 전반적인 주장을 생각하면 당연히 맞는 소리입니다.
- ④ 벤야민은 생산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의 소외도 받아들여요. 벤야민의 주장, 즉 화제를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 ⑤ 다시 한 번? 집단 규율(생산학파) + 내면세계(소비학파) = 벤야민 = 화제!

38. ③

- ③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 뭐.. 설명이 필요없는 개쉬운 지문이었습시다. 길다고 이거 넘겨버리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거 같아요. 사실 이 지문 외에 이번 시험의 모든 지문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비주얼에 끌지만 않으면 다 충분히 할 만한 지문이었어요.

[39~41]

39. ⑤

- 참고로 이렇게 내용이해가 쉽지만은 않은 소설 및 시나리오 지문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장면을 상상하며 읽어 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좋아하는 배우들을 대입해서 읽어 보세요! 물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 장면 그대로를 떠올려도 좋구요.

- ① ‘장연우’라는 소피의 아버지는 중립국을 택한 76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내용이해 + 인물관계 파악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 ② 수혁에게 경필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 조사 의지가 없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네요.
- ③ 수혁은 소피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지문에서는 지시문 같은 ‘대사 외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저 없이’라는 지시문을 보고 수혁이 진심으로 친근감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경계한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 ④ 소피는 ‘사라진 얼굴’을 바탕으로 수혁에게 협박(소피 표현대로라면 거래)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 ⑤ 그러니까 오경필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거래하려고 하겠죠? 정답 선지는 허무할 정도로 쉽게 나왔네요.

40. ⑤

- ① 판문각 근처 부감을 통해 외부를 허용할 수 있고, 그 밑에 ‘팔각정 내부’로 초점을 이동했다는 것을 보고 내부도 허용할 수 있네요.
- ②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소피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 ③ 석 장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④ 거래의 내용이죠. 지문을 이해하며 읽었다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 ⑤ 수혁은 소피를 만나러 왔다가 진실에 대한 거래를 제안 받습니다. 진실을 말해주려고 소피를 만난 것이 아니예요. S#82을 보면 수혁은 ‘영문도 모르고’ 불러옵니다. 여기서도 ‘대사 외 부분’이 정답의 근거로 사용되었네요.

41. ⑤

- ① 보타와 북한 군인의 쌍안경 시점이 나오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 ② ㉠ 바로 앞에서 ‘사진과 기록 영화 화면’이 나오죠?
- ③ 이런 걸 설명해야 하나요..? 여러분 모두 당연하게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④ S#81에는 인물의 대사가 없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 ⑤ 스웨터를 걸쳐 보였다는 건 스웨터를 보라는 건데,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으면 목이 잘 안 보이겠죠? 애가 답이네요.

[42~45]

42. ②

- ① 풍자.. 세대 비판.. 너무 거창한 개소리네요. 이 지문은 그냥 병일이의 내적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회를 비판한 적은 없어요.
- ② 이거죠. 내적 갈등=주관적인 판단. 지문을 읽었다면 이거 말고 답으로 고를 게 없습니다.
- ③ 과장도,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도 허용하기 힘듭니다.
- ④ 자연에 대한 감각적 묘사.. 환상적 분위기... 네 좀 그렇죠..?
- ⑤ ‘빈번한 장면 전환’이 허용이 되려면 정말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막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지는 않죠? 긴장감 해소도 허용하기 힘들구요.

43. ④

- ① 꺼멍게 멍들기 시작한 = 변화하고 있는
- ②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뜻하니까 허용할 수 있네요. 제가 끝나간다고 해설 대충 쓰시는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쉬워요.
- ③ ‘피곤한’ 병일이가 장마를 ‘지루하다’라고 느끼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인물의 심리를 묻고 있는 선지입니다.
- ④ 누각은 그냥 박쥐도 나들지 않는 그런 곳이지 병일이가 가서 시간을 보낸다는 말은 나온 적이 없네요. 이렇게 허무하게 정답 선지를 주는데 해설에 쓸 말이 어디있습니까 TT
- ⑤ 들리는 ‘뚝’ 하고, 잠이 오지 않으니 휴식을 방해하는 상상의 소리를 허용할 수 있네요.

44. ⑤

- ① 2년 동안 신원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불안정한 처지를 허용할 수 있겠네요.
- ② ‘불쾌한 감’이라는 심리를 체크했다면 쉽게 허용할 수 있겠죠.
- ③ ‘신문 외엔 활자와 인연이 없다’를 통해 ‘세속적 삶’을 허용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이 경쾌해 보인다고 했으니’ 관심을 가진다는 것도 허용할 수 있겠죠.
- ④ 몇 푼 안 되는 월급으로 산 책들은 병일이 몰두하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이 책들이 무겁다고 했으니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도 허용할 수 있겠네요.
- ⑤ 일단 ㉠에 타인의 삶이 나오지도 않았고, 관심은 어떻게 허용이 되는데 실망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약간 여러분이 피시방에서 게임하는데 ‘아 공부해야하는데... 에이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망은 허용하기 힘들죠. 아 자신에 대한 실망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ㅎㅎ

45. ①

① 하숙방은 혼자서 책만 읽는 공간이니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공간을 허용할 수 있고, 사진관은 '취흥'을 즐기러 가는 곳이니 일시적인 도피를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항상 문학의 선지들은 말이 되면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 개소리만 지우는 거예요.

② 하숙방에서 니체 생각을 한 건 나오는데, 사진사에 대한 '동정'이라는 심리는 전혀 나오지 않죠?

③ 하숙방은 혼자 있는 곳인데 무슨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나요. 사진관이 위안을 준다는 건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하숙방은 혼자 있는 곳이라니까요!! 주인의 감시는 사무실에서나 계속 됩니다. 뒤의 내용은 허용할 수 있겠죠?

⑤ 사무실에서 겪는 고역이 퇴근하고서도 벗어났다는 느낌이 없다고 했으니 앞의 내용은 허용이 되는데, 사진관에서 과거를 긍정한다는 건 도저히 허용하기 힘드네요. 이런 개소리들만 찾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 홍길동전을 포함해서 이번 소설 3지문은 전혀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실 문학을 어렵게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소설은 항상 강조하는 인물관계, 시공간적 배경, 인물의 심리 및 행위의 근거, 배경 및 외양 묘사만 신경 쓰면서 '내용이해'에 초점을 두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선지 판단은 뇌피셜이 아닌 위에서 말한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별 거 아닙니다.

- 이번 9평도 변한 건 없습니다. 어려웠다는 17수능이나 쉬웠다는 15~16 모의평가와도 완벽하게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평가원은 항상 똑같은 것을 물어 보고, 우리는 항상 똑같은 것을 준비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수능까지 69일 남았네요. 이제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굳히기에 들어가고,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막판 대역전을 노리는 시기네요. 냉정하게 말해서 늦은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런 늦은 시기에 막판 대역전을 이뤄내는 경우도, 내주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하던 대로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보통의 사람 혹은 막판 대역전을 이뤄 내는 특별한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험보느라 고생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은 아직 더 고생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금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치열할지도 모르는 69일을 응원합니다. 수능이 끝난 뒤 웃는 모습으로 연락합시다.